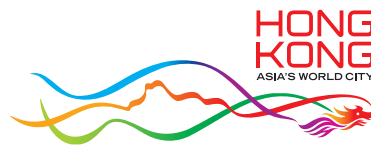


HONG KONG LINER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과 대구에서 내한 공연 선보여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0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좌측, 서있는 사람)와 협연을 선보였다.



공연 직전에 개최된 리셉션에서 베네딕트 포 홍콩필하모닉 대표(우측 두 번째), 베니 호 홍콩필하모닉 상임 이사(우측 첫 번째),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좌측 두 번째), 레오 제 홍콩경제무역역대표부(도쿄) 차석대표(좌측 첫 번째)와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역대표부(도쿄) 수석대표(가운데)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0월 28일 서울 예술의 전당, 10월 2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 협연을 선보였다. 두 공연 모두 호평을 받았으며, 티켓은 판매 시작 직후 매진되었다.

이번 홍콩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은 홍콩경제무역대표부에서 후원하였다.

10월 28일 서울에서 공연 이전에 개최된 리셉션에서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역대표부(도쿄) 수석대표는 홍콩 필하모닉이 진정한 홍콩의 문화 홍보대사라고 말했다.

아우 수석대표는 “홍콩 필하모닉은 홍콩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홍콩의 문화적 면모를 전하고 있다.”라며, “자랑스럽게도 영국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은 홍콩 필하모닉을 2019년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한 바 있다.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우 수석대표는 홍콩 필하모닉의 첫 내한 공연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17년에 마지막으로 내한 공연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명성 높은 서울 예술의전당을 다시 찾은 홍콩 필하모닉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한다. 홍콩 필하모닉은 이번에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씨와 함께 협연하며 특별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인모씨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아시아 최고 음악가들이 펼칠 고대하던 이번 협연이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시정연설 - 경제 활성화 및 비즈니스 지원

존 리 행정수반은 10월 25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발표하였다. 동 시정연설은 '일국양제' 아래 홍콩의 이점을 최대 활용하여, 홍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발표된 조치에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명시된 홍콩의 8가지 중점 분야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무역 및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강

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중국 본토 및 해외 기업, 인재들을 홍콩에 유치하고, 홍콩을 '본부 중심 경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10월 26일 부터 홍콩 주재 해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우선적인 비자 수속을 통해 중국 본토를 방문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유효 기간의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과제 이외에도, 정부는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홍콩에 인재 유치 전략을 구성하고 인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인재 서비스 부서가 설립되었다.

(시정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

홍콩, 세계 랭킹 상위권 유지

경제자유도

홍콩은 프레이저 연구소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전세계 2위에 올랐다. 홍콩은 보고서의 다섯 가지 평가 부문 중 '국제 무역 자유도' 부문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였으며, '규제'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금융센터지수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중국 선전의 중국종합개발 연구원이 9월에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에서 전세계 4위를 유지했다.

세계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혁신지수에서 선전-홍콩-광저우 과학기술클러스터는 4년 연속으로 2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아시아에서 5위를 유지하였고, 전세계 132개 국가 및 지역 중에서는 17위를 차지하였다.



2023년 홍콩 핀테크 위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 홍콩 핀테크 위크는 글로벌 리더, 임원, 규제 당국 및 혁신 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500명 이상의 연사, 700명 이상의 전시 참가자, 3만명 이상의 일반 참가자들이 동 행사에 참석하였다.

재무국고부와 홍콩투자청이 주최한 홍콩 핀테크 위크는 금융 서비스 및 여타 부문에서 핀테크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저명한 연사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전시회, 딜 플로어, 워크샵, 네트워킹 및 부대 행사, 데모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11월 2일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홍콩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들은 핀테크와 실물 경제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합 펀드 플랫폼(IFP) 출시,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여행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간 디지털 위안화(e-CNY) 어플리케이션 도입, 가상 자산 및 웹3.0 부문을 통한 실물 경제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혁신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의 심화 발전 등이 포함되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국내 각계 인사와 면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우측에서 세 번째)과의 면담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의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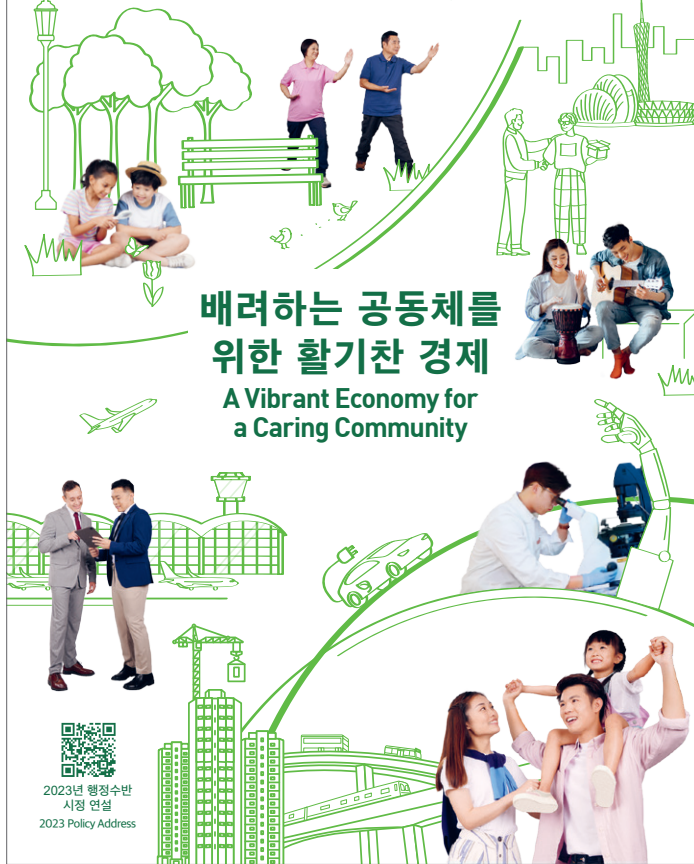
신재현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면담

원섭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도쿄) 수석대표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서울, 부산, 과천을 방문해 정부, 재계, 문화 부문 등 각계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국과 홍콩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3년 행정수반 시정 연설 The Chief Executive's 2023 Policy Ad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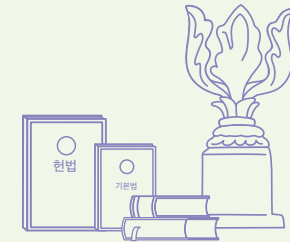


배려하는 공동체를 위한 활기찬 경제 A Vibrant Economy for a Caring Community

2023년 행정수반
시정 연설
2023 Policy Address

‘일국양제’ 원칙과 국가안전법 수호

- 2024년까지 기본법 제23조 입법 마무리
- 에너지-통신-교통-금융기관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 애국 교육 증진
 - 국가 교육 시스템에 애국 교육 통합
 - 중화문화선양관공실 설립
 - 조국 및 전쟁 관련 기념관 2곳 설립
 -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강화



거버넌스 개선

- 특정 작업에 대한 150개의 지표를 설정, 이 중 73개는 새로 설정
- 개편된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완전히 구현
- 주요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 위원회 및 주요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사무소를 설립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 및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해 자문
- 광동성 정부 및 여타 기관과 함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주 지역(GBA) 내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공동 투자 펀드 설립을 모색
- 디지털 정책 사무소를 설립하여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더 많은 정부 데이터의 개방을 촉진
- 성과에 더욱 중점을 둔 행정 서비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정부에 유치
- 가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 여타 대만주 도시들과 함께 '대만주 긴급 대응 및 구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조직화된 위기 관리 역량 강화

홍콩의 강점 강화 및 다각화된 경제 구축

-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 주식시장 유동성 강화, 역외 위안화 사업 확대, 대만주 협력 강화, 녹색 금융 진출 등
- 글로벌 경제 및 무역 네트워크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 사무소 추가 설치
- 물류의 스마트 개발, 현대화,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국제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대 물류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
- 유연한 상환 방식 제공, 전자상거래 활용, 디지털 전환 촉진, 수출 신용 보험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혁신 및 기술(I&T) 생태계의 성장 가속화
 - 신산업 개발 사무소를 설립하여 전략적 기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업 부문의 업그레이드 및 전환을 촉진하며, 스타트업을 지원
 - 홍콩 마이크로전자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설립하고 마이크로 전자 센터에 위탁해 마이크로전자 R&D 및 산업 발전을 촉진
 - 인공 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슈퍼컴퓨팅 센터 설립을 가속화
 -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화 가속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과 주력 개발 촉진에 위한 매칭 기금 마련
- 문화 및 창의 산업 발전
 - 예술-문화-창작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창조산업 진흥청을 설립
 - 영화 발전 기금과 'CreateSmart Initiative'에 43억 홍콩달러를 투입
 - 대표적이고 대규모의 주요 공연 예술 작품이 정기 공연으로 무대에 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그니처 공연 예술 프로그램 출범
 - 홍콩의 패션 및 섬유 디자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대표 이니셔티브로 홍콩 패션 디자인 워크숍 개최



- 홍콩을 선도적인 국제 해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를 촉진하며, 대만주 해양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 및 항만 개발 전략 실행 계획을 발표
- 북부 신도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
 - '산업 중심'의 접근 방식 채택
 - 중국 선전 및 기타 대만주 도시와 긴밀하게 통합
 - 시장의 동력을 활용하여 개발 가속화
- 홍콩 관광 산업 2.0의 개발 청사진 수립, 대표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 관광 경제 발전 확대
- 신에너지 수송 촉진 - 친환경 해상 연료 병커링 및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공급, 수소 개발 전략 수립, 육상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촉진

기업 탐색, 인재 유치 및 유지

- 홍콩 외부에서 홍콩에 본부 및/또는 기업 부서를 설립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본부 중심 경제'를 개발하고, 홍콩으로 다시 거주지를 이주하는 기업을 유치
- 홍콩에 주재하는 기업의 직원을 포함한 외국인인 우선적인 비자 수속을 통해 '복수 입국 비자'로 중국 본토를 여행할 수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및 네덜란드에 입국이 완화됨
- 홍콩 인재개발관공실을 설립하고, 우수 인재 취업비자의 적용 확대를 확대하며, 자본 투자 진입 제도를 시행
- 홍콩 국제 법률 인재 양성 아카데미와 홍콩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홍콩을 인재 양성 기지로 발전

살기 좋고 활기찬 도시 건설

- 더 많은 토지와 주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하며, 개발 잠재력을 발휘
- 향후 10년간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약 41만 채의 공공 주택을 건설
- 홍콩의 분할형 아파트(Subdivided Units, SDU) 문제를 조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
- 건물 안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법률 검토
-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탈탄소화 강화, 자원 회수 및 재활용 범위 확대
- 홍콩의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여 3대 철도 및 도로 관련 제안을 개선하고 2개의 철도 및 1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 구룡 반도 동쪽, 카이탁, 홍수이키우/하원에 새로운 스마트 친환경 대중교통을 건설
- 카이탁 스포츠 공원을 위탁하고, 홍콩 스포츠 센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코치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인턴십 기회를 강화하며,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
- 도시 미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샤이닝 시티 프로젝트(Shining City Project)'를 출범

출산을 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신생아 1명당 2만 홍콩 달러의 현금 보너스 지급
- 신생아를 동반한 가족의 주거 관련 세금 공제 한도를 12만 홍콩 달러로 인상
- 신생아 출산 가정 주거지 선택 우선권 제도 도입 - 신생아 출산 가정은 보조금 지원 아파트 분양 시 더 많은 추천 기회와 주거지 선택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됨
- 신생아 출산 가정 우선 배정 제도 도입 - 신생아 출산 가정은 공공 임대 주택 아파트를 1년 더 일찍 배정받게 됨
- 출산 보건 서비스 지원 - 공공 의료 부문의 서비스 할당량을 늘리고 출산 보건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
- 근로 가족 수당 인상, 보육 센터 확대 및 수당 인상, 예비 초등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모든 지역에 확대하고 가정 기반 양육 서비스를 강화



노인 돌봄을 위한 포용적인 커뮤니티 조성

- 광동성의 주거용 요양 서비스 제도를 중국 본토 기관이 운영하는 노인 주거용 요양 시설로 확대하고 주거용 요양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
- 노인 및 재활 치료를 위한 혁신 및 기술 기금에 10억 홍콩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적격시설에 기술 제품을 조달, 임대 및 시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
- 실버 경제 자문 패널 설립을 통해 실버 경제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포착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거주 요양원 및 주간 훈련 서비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험 장애인 CSSA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장려
- 돌봄 팀을 동원하여 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간병인을 파악하고 지원

고등 교육을 위한 국제 허브 구축, 청소년 다양성 개발 촉진

- 정부 지원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 입학 할당량을 40%로 두 배로 늘리고 장학금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해외 및 중국 본토 학생들을 홍콩의 고등 교육으로 유치
- 북부 신도시 대학 타운(Northern Metropolis University Town)을 개발하고 고등 교육 기관이 중국 본토 및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 응용 과학 대학 설립을 촉진하여 직업 및 전문 교육과 훈련을 대학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기술 전문직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
- 정보 기술 분야의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해 홍콩 정보 기술 연구소를 설립
- 중국 본토와 학사 학위 수준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서비스를 소개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 소수 민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센터 2곳을 신설하고 소수 민족 돌봄 팀을 구성
- 복지 서비스 기관의 직원 교육, 시스템 강화 및 다분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홍콩달러의 전용 기금을 조성
- 목표 빈곤 완화 전략을 채택하고, 우선 대상 그룹으로 분할형 아파트 거주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재취업 촉진, 재교육 수당 인상, 직원 재교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검토, 노동 보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계약' 요건 수정

건강한 홍콩

- 신약 출시를 가속화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등록 승인에 '1차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홍콩 의료품 규제 센터 준비 사무소를 설립
- 허타오 협력구에 대만주 국제 임상시험 연구소를 설립하여 의료 연구 기관이 신약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을 제공
- 개인 맞춤형 디지털 건강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자가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전자 건강 기록과 예약을 확인하고 휴대할 수 있는 eHealth+를 출시
- 2024~25년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외상외과에서 비응급 신규 환자의 대기 시간을 10% 단축
- 병원 당국의 정신과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정신 건강 검사를 제공하는 시범 계획을 시작하며, 사회 복지사 및 돌봄 팀원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교육을 제공

-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현지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 및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 개발을 통한 인력 부족을 완화
- 한의학(CM)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화된 한약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며, 한약 개발 청사진을 수립



디자인: 정부 신문처
발행처: 정부물류부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활용 용지에 환경 친화적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SPOTLIGHT HONG KONG



타이항 파이어 드래곤 댄스 소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이어진 중추절 저녁에는 수천 개의 불타는 향을 꽂은 67미터의 용과 수백 명의 공연단이 홍콩 코즈웨이 베이 타이항 골목골목을 누빈다. 파이어 드래곤 댄스는 한 세기가 넘게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다.

